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강화 위한 국립대학병원 제도개선방안 논의

- 「국립대학병원 혁신 협의체」 제2차 회의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14일(목) 16시에 서울시티타워(서울 중구 소재)에서 전병왕 보건 의료정책실장 주재로 「국립대학병원 혁신 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혁신대책」(10.19)의 일환으로 국립대병원을 지역·필수의료 네트워크의 중추로 육성하기 위해 「국립대학병원 혁신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난 11월 29일(수)에 제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 정부(복지부, 교육부), 국립대학병원(서울대, 충북대, 경북대, 전남대), 민간전문가 등

제1차 회의에서 「국립대학병원 혁신 협의체」 구성·운영계획과 「필수의료 혁신 정책 추진현황」을 논의한 것에 이어, 이번 제2차 회의에서는 ①국립대학병원 주요 정책 추진현황(교육부)과 ②필수 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제도 개선 사항(국립대학병원협회)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지역·필수의료 생태계 위기 상황에서,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각 지역에서 거점의료기관 역할을 하고 있는 국립대학병원의 역할과 역량 강화가 매우 중요한 과제임에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 의료정책실장은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된 의료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지역·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마련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연계해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국립대병원에 필수

의료를 되살리기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부여하고 지원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협의체 회의를 지속 개최하여 국립대학병원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이를 통해 「국립대학병원 혁신·발전방안」 등 구체적인 과제와 이행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 의료정책실장 주재로,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임재준 서울대병원 공공부원장, 한정호 충북대 학병원 기획조정실장,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양은배 연세 대학교 의학교육학 교수 등이 참석하였다.

<붙임> 「국립대학병원 혁신 협의체」 제2차 회의 개요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공공의료과	책임자	과 장	김지연 (044-202-2530)
		담당자	서기관	이화영 (044-202-2531)

1 회의 개요

- (일시) 12.14.(목) 16:00~18:00
- (장소) 서울 시티타워* 회의실 * 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110
- (참석자) 총 10명
 -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5명】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 김지연 공공의료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 김수정 국립대병원지원팀장
 - 【국립대병원: 3명】 임재준 서울대학교병원 공공부원장, 윤경철 전남대학교병원 기획조정실장, 한정호 충북대학교병원 기획조정실장
 - * (불참) 김건엽 경북대병원 공공부원장
 - 【민간전문가: 2명】 신현웅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양은배 연세대학교 의학교육학 교수

2 회의 안건

- (안건 1) 국립대학병원 관련 주요 추진업무 현황
- (안건 2) 필수의료 강화 위한 국립대학병원 제도 개선방안

시간	주요내용	비고
16:00~16:30('30)	❶ 국립대병원 관련 주요 추진업무 현황	교육부 대학규제혁신국장
16:30~17:00('30)	❷ 필수의료 강화 위한 국립대병원 제도 개선방안	서울대병원 공공부원장
17:00~18:00('60)	자유 토론	